

# 친한 vs 친윤 '김건희 의혹' 실전...국힘 내분 점입가경

###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권성동 "알뜰한 정치공학" 직격 대통령실, 공식입장 없이 침묵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주변 인맥'을 놓고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김 여사 주변을 향한 인적 쇄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공개 언급을 연일 내는 데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공

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를 만에 더욱 구체적으로 김 여사와 가까운 그룹의 인적 쇄신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도 불리는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그룹을 정리해야 한다는

인적 쇄신론까지 꺼내 공개 압박의 강도를 더했다.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을 7명 안팎으로 추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급 인사들의 명단이 정치권에 나돌기도 했다. "명+α"라는 주장도 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직책·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목한 것"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선 정치' 하지 말라며 굳기 잡기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여사 라인은 없다고 정리해주든지, 인사 조치를 하든지, 용산에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한 대표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선제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측근들과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내밀해야 할 독대를 앞두고 첫 제안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측근들의 입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적전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14일 소셜미디어에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토크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며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문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느냐"라며 "이제까지 이런 알뜰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김여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대표가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만천하에 다 얘기했다. 이게 과연 독대인가"라며 "독대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고 얘기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말을 아껴야 할 때", "상황을 지켜보자"는 등 한 대표 관련 언급을 삼갔다. 재보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여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조국, 부산 금정 야권 후보 지지 유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장전역 장전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 현장

### 조인철 "MBC·TV조선, 혐소핑 연계 편성 최다 적발"

방송국과 혐소핑이 연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국과 혐소핑의 연계 편성을 점검한 결과, MBC(298건)와 TV조선(733건)이 각각 지상파·중편에서 최다 적발됐다. '연계 편성'이란 방송사에서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혐소핑 채널에서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방송국의 편성을 참고하여 혐소핑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제품을 인근 시간에 판매하는 짝수 전략도 문제지만, 방송사와 혐소핑 간의 사전 조율로 방송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로 한 달간 방송사와 TV 협

소핑의 편성을 확인하고 '협찬 고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연계 편성 결과에서 KBS1, KBS 2, EBS는 단 한 건의 연계 편성도 없었던 반면, MBC는 지상파 57개사의 전체 적발 건수 433건 중 29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실제 MBC는 2023년 5월 1일 '기본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글루타치온'에 관한 내용을 방영했는데, 'W쇼핑'에서는 '더 화이트 글루타치온40'을 판매했고, '롯데홈쇼핑'에서는 '더 화이트 글루타치온 맥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 중편에서는 같은 기간 총 1915건의 연계 편성이 적발됐고, TV조선은 38%인 733건을 연계 편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한동훈, 다음주 독대 결정

### 재·보궐 선거 후 일정 조율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했다. /연합뉴스

## 정준호 "광주, HUG분양보증사업장 미분양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미분양 세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대규모 분양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컸다. 미분양 세대수의 폭발적 증가는 건설 자재비 상승, 고물가, 고유가 등의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G의 분양보증사업장

을 중심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지금 난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UG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미분양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